

브라질 정부, 인터넷 광대역 확산계획 추진

- 브라질 정부는 현재 약 19%대인 전국 인터넷 보급률을 2014년까지 약 70%대까지 확산할 목적으로 인터넷 광대역 확산계획(PNBL)을 3월중 발표할 예정
 - 3월중 발표예정인 인터넷 광대역 확산계획(PNBL)의 주요 골자는 현재 국영 전력분야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광케이블의 사용을 민간사업자앞 광섬유망 도매를 통한 일반 소비자에게까지 확대한다는 내용
- 현재 브라질의 인터넷 보급수준은 전국민의 19% 정도로 상파울루 및 리오주 등 소득수준이 높은 주의 경우 인터넷 보급률이 높은 수준이나 북부 및 북동부 지역의 경우 인터넷 서비스가 없는 지역이 많고 또한 인터넷 사용료가 해당지역의 소득수준에 비해 너무 높아 보급률이 저조한 형편
 - 이에 따라 금번 정부의 광케이블 사용의 민간 통신회사앞 분양방침에 따라 현재의 유료 TV 송신 서비스 회사 및 전화 서비스를 겸하고 있는 민간사업자들의 참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
- 브라질 정부는 국영 통신회사인 Telebras 통신회사를 통하여 통합시스템 관리 및 광케이블 서비스의 요금 관리를 위임할 예정으로, 지역별로 요금을 차별화하여 상파울루 등 고수익 지역의 경우 사용료가 비싸게 될 전망이며, 북부 및 북동부 지역의 경우 저가로 공급할 예정
 - 또한 민간기업이 수익성을 고려하여 참여를 꺼려하는 지역의 경우 Telebras 정부 통신회사가 직접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으며, 아울

러 현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민간기업의 인터넷 서비스 요금이 타지역의 평균 사용료보다 약 50% 이상 높게 서비스 되고 있는 경우에도 Telebras 회사가 직접 서비스를 공급할 예정

Telebras사의 인터넷 광케이블 연결망 현황



- 브라질 정부는 금번 인터넷 광대역 확산계획(PNBL) 추진을 위해 약 R\$30억 헤알에서 최고 R\$150억 헤알까지 투입할 계획
 - 이 같은 계획이 Telebras사를 통해 실행될 경우 현재의 인터넷 서비스 요금이 약 70% 정도 낮아질 수 있으며, 2014년까지 전국의 약 68% 가정에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
 - 브라질 정부가 추정하는 인터넷 속도별 서비스 요금의 경우 256kbps는 R\$15, 512kbps R\$25 그리고 1Mbps R\$35정도로 추정

<상파울루 사무소 제공>